

# SUNBO NEWS

주요소식

‘PLUS 2020 프로젝트’

## 비전 PLUS 2020 경영전략 수립 워크숍 개최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6일 '비전 PLUS 2020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1차 워크숍을 한국해양대학교 ETRS 센터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비전 PLUS 2020 경영전략 워크숍'은 'PLUS 20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회사가 지난 9월 1일부터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전사적 프로젝트이다.

'PLUS 2020 프로젝트'는 회사의 비전 설립을 위해 Top-down 방식이 아니라 Botton-up 형태로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회사의 비전을 설계한다. 우리 회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비전 설립을 위해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 '딜로이트'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으며 'PLUS 2020 프로젝트' TFT를 구성했다.

TFT는 C그룹, S그룹, K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특히 C그룹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 3개월간 풀타임 TFT로 최영찬 차장, 오종훈 차장, 고덕수 차장, 유무성 차장, 김은식 계장이 선정되었다. TFT와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는 프로젝트 1단계로 조선업계 외부환경현황부터 현 가치체계, 주요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사 현황 등 다각적으로 경영진단을 시작했다.

경영진단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TFT 외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리급 이하 직원과 컨설턴트를 포함한 43명이 참석했다.

1차 워크숍은 중장기 미래상 및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우리 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공유, 아이디어 도출 및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고 경영자의 성장의지 및 전략방향성, 신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 중장기 미래상 및 핵심가치에 대한 고민 등을 주제로 토론을 실시했다. 1차 워크숍에 이어서 진행되는 2차 워크숍은 10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 2차 워크숍에서는 1차 워크숍에서 도출된 문제와 현황, 신사업 등 토론한 결과를 통해 본격적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이 바탕이 되어 전사 경영목표 수립, 전사 전략맵 등 구체적인 경영전략과 성과평가 체계가 고도화되어 최종적으로 11월 20일 우리 회사 PLUS 2020 비전이 발표될 예정이다. PLUS 2020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선보인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진행할 성공 드라마가 될 것이다.

### 한국선급 박범식 회장, 우리 회사 방문 상생 발전 협력 위해

지난 9월 10일 한국선급 박범식 회장 외 관계자 4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한국선급은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선급 등록 및 유지 관련 선박 도면심의, 기술검토 및 승인 등을 맡고 있다. 박 회장은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본사에 마련된 홍보관을 비롯하여 각 사업장을 투어 했다. 박 회장은 "어려운 조선업계 여건 속에서도 곳곳하게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선보공업을 지지합니다." 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향후 우리 회사와 한국선급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투어 일정을 마쳤다.



###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위해

### 한국해양대학교 LINC 사업단 우리 회사 방문

지난 9월 23일,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하 LINC사업단)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조효제 교수를 비롯해 8명의 교수는 해양플랜트 특성화 산학협력 연계체제 구축, 산업체 공동장비구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회사를 찾았다. 현재 LINC사업단은 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대학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업난 해결, 대학과 지역사업의 공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조효제 교수는 "우리 LINC사업단은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구축 취업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선보공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며 향후 우리 회사와 LINC사업단의 상호적인 관계를 약속했다.



왜 혁신인가

# 코닥과 노키아의 몰락이 주는 교훈

코닥과 노키아를 기억하시나요?

20세기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코닥과 노키아는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했고, 안정성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자만심에 빠져 새로운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몰락한 코닥과 노키아의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1880년에 설립된 이스트먼 코닥(Eastman Kodak Company)은 세계 최초 롤필름 개발을 했고, 사진기와 인화지 등 수많은 사진 관련 제품을 쏟아냈다. 1976년에는 미국 필름판매 점유율 90%를 차지했으며, 카메라 판매 점유율도 85%를 기록하는 등 필름과 카메라 업계의 최강자로 우뚝 섰다. 코닥은 1975년에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고 1981년에 이미 사내 보고서에 디지털카메라로 인한 자사의 위협을 분석하기도 했지만, 기존의 필름 시장에 안주하는 실수를 하고 만다.

또한 코닥은 2000년 이후 필름 사업부와 디지털 카메라 사업부를 제때 매각하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결국 2012년 1월 19일 파산 보호 신청을 하였다. 기존 주력제품이던 필름 시장이 잠식될 두려움에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늦추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의 시험작만을 출시하며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을 억지로 늦추는 실수가 초래한 결과이다.

노키아는 제지회사로 시작했지만 1990년대 침체기였던 제지 사업을 매각하고 영국 '테크노폰'을 인수해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어 1998년부터 13년간 글로벌 휴대폰 시장 최강자 자리를 유지했다. 노키아는 스마트폰으로 대세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일반 휴대폰 판매에 주력했고 디자인 또한 실용적으로만 접근해 스마트폰을 접한 사용자들은 답답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키아는 1990년대 최초의 스마트폰을 개발했고, 2004년에는 터치스크린 폰을 시장에 내놓는 등 최초의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있었지만, 코닥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피쳐폰 시장 잠식을 우려해, 투자를 꺼려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점유율이 종래의 40%대에서 23%까지 떨어졌으며, 영업 이익이 2009년 3분기 기준 4억 2,60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고 매출이 1조 유로 아래로 내려갔다. 노키아는 경영난으로 2012년 12월 4일 에스포의 본사 사옥을 1억 7,000만 유로(약 2,408억 원)에 매각했고, 이후 애플과 삼성에 시장을 뺏겼다. 노키아는 세계소비자의 '가치흐름'을 읽는데 실패하고 서서히 몰락했다. 노키아의 실패는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코닥과 노키아의 몰락은 급진적 환경변화로 기존 성공 공식이 소용없게 됐음에도 성공의 빛에 빠져 기존 강점의 방어와 개선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은 혁신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우리 회사 또한 'PLUS2020'을 재정립하며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조선업계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PLUS 2020 미래창조' 경영혁신을 우리 손으로 성공시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포인트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위키백과, 네이버캐스트

회사소식

# 'PLUS 2020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지난 9월 10일 우리 회사 본사 3층 옥상 교육장에서 'PLUS 2020 프로젝트'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PLUS 2020 프로젝트' 발대식은 우리 회사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사적 프로젝트 'PLUS 2020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이다. 발대식에는 최급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청욱 상무, 최영찬 차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회사는 설립 이래 국내 1위 조선-해양 기자재 모듈 제조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조선업이 불황기에 접어들며 성장정체를 겪고 있으며 지속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PLUS 2020 프로젝트'를 전사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영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와 함께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비전을 설립할 계획이다. 향후 3개월간 우리 회사는 딜로이트와 함께 TFT를 구성해 'PLUS 2020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비전 'PLUS 2020'은 11월 2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회사소식

# 선, 후배 사우를 잇는 Sunkey 멘토링제도 4기 시작



지난 9월 17일(목)에는 제4기 Sunkey 멘토링 결연식이 개최되었다. 멘토링 결연식은 본사 4층 옥상 교육장에서 실시되었으며 김청욱 상무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2기 우수 멘토링으로 선정되었던 김유미 계장은 사례 발표에서 Sunkey 멘토링 선배로서 많은 조언과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시작된 Sunkey 멘토링 제도는 신입사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멘토가 멘티에게 업무 지식이나 노하우,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 등을 통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올해의 멘토링 제도는 입사한 지 일 년 미만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참가자를 자랑하고 있다. 멘티와 멘토로 총 41명이 3개월간 조별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멘토링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일주일 1번 만남, 한 달에 1번 문화 활동이 진행될 것이고 멘티 1인에게는 활동비 월 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멘토링 제도는 멘토와 멘티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일로 받아들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정한 멘토링 관계를 맺게 되어야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 멘토와 멘티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4기 멘토링 활동 또한 기대해 본다.

CEO Message

# 최금식 대표이사가 전하는 따뜻하고 소중한 메시지

## 몸을 단련하라

- 성공하는 인생을 원한다면 몸 단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 운이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자꾸 놓칩니다.
-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훌륭한 구상과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 자신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향해 언제라도 될 수 있을 정도의 활력을 갖춘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체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의 심장과 근육과 뼈가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몸에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 몸을 단련하세요.
- 건강도 좋아지고 목표를 향한 의지와 책임감도 좋아집니다.

## 맨발로 땅과 하나되기

- 바쁜 일상 속에 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발바닥을 느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 아무 걸림 없이 몸의 무게가 고스란히 발바닥으로 전달되는 그 감각을 찾아보세요.
- 지금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바르게 서 보세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허리를 반듯하게 합니다.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전해지는 내 몸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받쳐주는 대지의 힘이 느껴집니다.
- 살아 숨 쉬고 있는 나의 몸,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땅에서 전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내 몸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 가능한 발바닥이 바닥에 빈틈없이 밀착하는 느낌이 들도록 자세를 잡아 보세요.
- 그렇게 서서 가만히 발바닥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발바닥으로 몸

건강정보

# 어깨운동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활기차게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지났습니다. 이번 명절은 4일간의 연휴기간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가족과 친지를 찾아뵙고 휴기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시간 운전으로 어깨에 피로가 누적되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업무로 복귀하며 쉽사리 컨디션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김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어깨건강을 지켜 줄 스트레칭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어깨 건강도 늘 한결같다면 좋겠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통증으로 고생하기 쉽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어깨 건강도 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어깨 운동으로 긴 추석 연휴의 피곤함을 날리고,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보세요.

- 좋은강안병원 재활치료팀 물리치료사 이동규

\* 사진 출처 : 좋은병원들

### 하복부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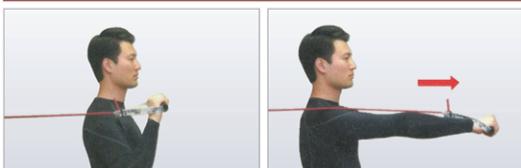
· 선 자세로 아픈 쪽 어깨를 문에서 멀리 하고 수건을 말아서 팔과 가슴 사이에 끼운다. 고무줄의 손잡이를 잡고 몸의 바깥쪽으로 당긴다.

### 내회전 운동



· 선 자세로 아픈 쪽 어깨를 문 쪽에 가까이하고 수건을 말아서 팔과 가슴 사이에 끼운다. 고무줄의 손잡이를 잡고 몸의 안쪽으로 당긴다.

### 전방 견인 운동



· 문을 등지고 서서 고무줄의 손잡이를 아래로 향하게 잡고 팔꿈치를 펴면서 앞으로 미는 운동을 반복한다.

### 후방 견인운동



· 문을 바라보고 서서 아픈 쪽 팔꿈치를 편 상태로 고무줄의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게 잡은 후 최대한 뒤로 당긴다.

H.S.E

# 근로자의 음주와 안전



술이란 무엇인가?

술은 에틸알코올(Ethylalcohol), 공업용어로는 에타놀이라고 부르는 화학물질의 한 종류이다.

냄새나 빛깔 및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이 있는데, 이를 마시면 몇 분만에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즉사하게 된다. 이처럼 알코올은 근본적으로 독성물질이지만 에틸알코올은 소량에 한해서 인체에서 흡수할 수 있다.

대체로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산업재해의 25%가 음주와 관련되며 문제 음주자가 일반적으로 사고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른 사람에 비해 3.6배 많음). 과음하는 남자 또는 알코올중독 남자들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2.5~8배 사고 당할 위험이 높다.

## 음주가 현장의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술을 마시게 되면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대뇌의 작용이 둔해지며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감각 기능이 저하되어 운전이나 기계조작의 정확성과 판단력, 속도감을 느끼는 능력, 돌발사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떨어진다.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떤 사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10~30% 늦어지며 동시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한 자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과하게 생겨나게 되어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 건전한 음주법

가능하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술을 거절하고 싶을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꼭 마셔야 한다면 몸에 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마셔야 한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성인 남자가 1일 알코올 실증량 30mg이하(소주 3잔, 맥주 3잔, 양주 2잔, 정종 1홀 또는 막걸리 2홀)이다.

## 음주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좋다

- 술을 안주와 함께 천천히 마신다.
- 빈속에 마시지 않는다.
-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 과음이나 폭음을 하지 않는다.
- 술 마시는 동안에 물이나 다른 음료를 마신다.
- 자기 주량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

## 술을 줄이는 3단계 법

술을 줄이기 위한 3단계 접근법은 미국 국립음주문제연구소(NIAAA)가 추천하는 것이다.

- 1단계, 술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나열해 보아라.
- 2단계, 목표를 설정하여 종이에 별도로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3단계, 일주일 단위로 음주일지를 기록하여 계속 모니터링 한다. 음주일지를 작성하여 위에 적은 목표가 달성되는지 계속 평가한다.

금주나 술을 줄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실망 하지 말라. 실패 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첫 잔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둘째 잔은 술이 술을 마시며 셋째 잔은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선보 가족 여러분 건강한 음주문화를 정착하여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집시다!

culture



## 특별한 하루 즐거운 점심식사! 입사 첫 생일과 입사기념일 축하

지난 1일 입사 후 첫 생일을 맞이한 김윤주 사원(설계팀)은  
최금식 대표이사과 여러 임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이에 김윤주 사원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보 가족들을 향한 편지를 썼다.

입사 후 첫 생일을 맞이하며... 김윤주

10월 1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8월 말, 입사 후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었지만, 회사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라 생일이라는 사실이 크게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업무 멘토이신 대리님을 따라다니며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 배우고 있던 중에 사장님께서 생일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 저를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신입사원 생활에 대하여 많은 위안과 격려를 해주셨고, 생일을 축하한다며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많은 직원들의 생일을 직접 챙겨주시는 사장님의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성문 사무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날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날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간단하게 보낸 저였지만, 생일 며칠 전부터 기숙사에 살게 되어 미국을 못 끓여 주신 다며 너무 속상해하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 기분이 울적해졌습니다. 퇴근을 하고 기숙사에 돌아와 어머니께 날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딸이 정말 다 컸다며 너무 기뻐하셨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선물도 받고 축하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려 생일을 즐겁게 보내 다행이라며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거 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번 생일을 보내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저를 만들어주신 부모님의 희생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입사 후 첫 생일과 입사기념일을 맞은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 9월 문화행사 단편소설극장 '새빨간 얼굴' 관람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지난 9월 30일,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1인공연인 단편소설극장 '새빨간 얼굴' 공연을 관람했다. 9월 30일, 35명이 본사 4층 대교육장에서 관람한 이번 공연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양손프로젝트가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문화가 있는 날 직

장 배달 콘서트'라는 콘셉트에 맞게 회사 내에서 공연을 관람한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재미있었다."며 사내에서 공연을 볼 수 있어 직장생활의 질 향상과 휴식에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업무 환경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생일 축하합니다

- ☑ 본사 김윤주 (10.01) 조철민 (10.01)  
신진환 (10.04) 황보석구 (10.05)  
한승진 (10.07) 이석형 (10.08)  
구우현 (10.16) 이창호 (10.19)  
이재연 (10.19) 김희태 (10.28)  
김임곤 (10.29) 이수원 (10.29)  
이경식 (10.09.06) 방대혁 (10.09.07)  
김창영 (10.09.13) 이종필 (10.09.16)

- ☑ 구평공장 이도현 (10.03) 김중균 (10.05)  
김진환 (10.12) 윤치호 (10.16)  
안세현 (10.24) 장길한 (10.24)  
김서홍 (10.30) 민병철 (10.21)  
전석연 (10.15)

- ☑ 영암공장 전성열 (10.19)



### 입사 기념일

- ☑ 본사 진병석 (10.01) 장호길 (10.01)  
조철민 (10.01) 이영우 (10.01)  
지기환 (10.01) 김임곤 (10.01)  
공성문 (10.04) 김희태 (10.10)  
김숙정 (10.11) 김태호 (10.12)  
장호신 (10.12) 최재현 (10.13)  
김술찬 (10.13) 양덕규 (10.13)  
알 빈 (10.15) 존 (10.15)  
허롤드 (10.15) 레이마크 (10.15)  
베네딕 (10.15) 패트릭 (10.15)  
정상규 (10.21) 채석목 (10.21)  
장세렬 (10.26)

- ☑ 구평공장 임우택 (10.13)

- ☑ 영암공장 임재명 (10.01) 김희희 (10.06)  
이규현 (10.08) 서순일 (10.09)  
이충훈 (10.13)